

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성전

성경: 출 24:16, 40:34-35, 왕상 8:10-11, 행 7:2, 55, 요 17:22, 엡 3:21, 계 5:13, 21:9-11

I.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이다. 영광은 하나님의 표현, 곧 찬란하게 표현되신 하나님이다 — 출 24:16, 행 7:55.

II.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과 성전을 가득 채웠다 — 출 40:34-35, 왕상 8:10-11.

A. “구름이 회막을 덮고,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웠다.” — 출 40:34.

1. 성막이 세워지고, 구름이 내려와 성막을 덮으며,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 성막을 가득 채운 그날은 위대한 날이었다 — 출 40:2, 34-35.

a. 회막 주위에 모인 사람들은 구름을 볼 수 있었지만, 성막 안의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간 대제사장은 성막의 내적인 영광을 볼 수 있었다 — 레 16:15, 히 9:7.

b. 이것은 우리가 교회생활을 체험하면서 계속 전진하여 성막, 곧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상에 있는 떡을 누리고 분향단에서 중보기도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처 안에 있는 영광을 체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— 출 40:34-35, 요 1:14.

2. 구름이 덮이고 영광으로 가득 채워진 성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큰 축복이었지만, 오늘날 우리는 그들이 단지 상징으로 가졌던 것의 실재를 가지고 있다 — 요 14:2-3, 6, 10-11, 16-18, 20, 26, 엡 2:18-22, 3:16-21.

B. “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집을 가득 채웠다.” — 왕상 8:11.

1. 성전, 곧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과 처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졌다 — 왕상 8:10-11.

2.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을 가득 채웠다는 것은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을 땅으로 모셔 오고, 땅이 하늘들과 연결되었다는 것이다 — 왕상 8:11.

3.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꿈을 꾸었다. ‘꿈에 보니 땅 위에 사다리가 세워져 있는데,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다’(12절). 그는 “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며 하늘의 문이구나.”(17절) 라고 말했다.

a. 거기서 사다리에 의해 하늘이 땅에 내려왔고 땅이 하늘에 연결되었다.

b. 이 사다리는 그리스도의 예표이다. 인성을 지니신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땅 위에 세워져 하늘에까지 닿는 사다리로서, 하나님의 집인 벰엘을 위해 하늘이 땅에 열려 있게 하시며 땅을 하늘에 연결시키신다 — 요 1:51, 창 28:19.

c. 오늘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에 의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으로 내려오시고 땅은 하나님께 연결된다 — 골 1:27.

d.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을 뿐 아니라, 그분의 세키나*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— 왕상 8:10-11.

* ‘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성한 임재’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음역한 단어임—역자 주

III. 삼일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— 행 7:2, 55.

A.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— 행 7:2, 55.

1.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표현되실 때 그것이 영광이다.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, 보이시는 하나님은 영광이다 — 출 13:21.
2.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, 그를 부르시며, 그를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분별 하셨다. 아브라함은 그 영광에 매혹되고 사로잡혔다 — 행 7:2.

B.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바울은 ‘영광의 아버지’라는 표현을 사용한다.

1. 영광의 아버지는 자신의 많은 아들들을 통하여 표현되신 하나님이시다 — 히 2:10.
2. ‘아버지’라는 호칭은 거듭남을 암시하고, ‘영광’이라는 단어는 표현을 암시한다. 그러므로 ‘영광의 아버지’라는 호칭은 거듭남과 표현을 암시한다.

C. 아들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은 영광 안에서 동일하시다 — 요 17:5.

1. 아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다. 아들은 아버지의 영광의 비침, 곧 빛남이시다 — 히 1:3상.
2. 그리스도는 영광의 왕, 만군(곧 군대들)의 여호와, 승리하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이시다 — 시 24:7-10, 눅 21:27, 마 25:31.
3. 그리스도는 영광의 주님이시다 — 고전 2:7-8.
 - a. 그리스도는 오늘날 우리의 생명이며, 장래에 우리의 영광이시다 — 골 3:4, 1:27.
 - b. 하나님은 우리를 이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부르셨으며, 또한 우리를 이 영광 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— 벧전 5:10, 히 2:10.

D. 베드로전서 4장 14절은 “영광의 영, 곧 하나님의 영”을 말한다.

1. 영광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다.
2. 영광의 영은 그리스도를 그분의 부활 안에서 영광스럽게 한 영이다 — 롬 1:4.
3. 바로 이 영광의 영은 부활하시고 높아지시어 지금은 영광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, 박해 가운데서 고난당하는 믿는 이들 위에 안식하고 계신다 — 벧전 4:13-14.

IV.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경륜과 내재적으로 관련이 있다 — 딤후 1:4, 엡 1:10.

- A. 하나님의 영원한 목표는 영원한 단체적인 표현, 곧 새 예루살렘을 위하여 그분의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는 것이다 — 히 2:10, 고전 2:7, 엡 1:5-6, 12, 14, 계 21:7, 9-11.
- B.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표현하게 하시려고 그분의 영광을 얻도록 미리 정하셨다. 따라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목표는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다 — 고전 2:7.
- C.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, 곧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된 귀하게 쓸 그릇으로 창조하셨다. 우리는 영광 안에 계신 그분의 존재를 표현하는 그분의 귀한 그릇들이 되도록 그분의 주권 안에서 미리 정해졌다 — 창 1:26, 롬 9:21, 23.
- D. 그리스도의 구속은 하나님의 영광의 요구를 충족해 드렸다 — 롬 3:23-25, 히 9:5, 비교 창 3:24.
- E.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한 영광에 의해, 그분의 영원한 영광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— 고후 4:4, 딤후 1:11, 살전 2:12, 벧전 5:10, 벧후 1:3.
- F.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영광의 소망으로 계신다 — 골 1:27, 3:4, 11.

- G.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할 때,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— 고후 3:18.
- H.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으로 운행하시어, 우리가 그분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신다 — 뵤전 5:10.
- I.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신성한 계시의 고봉과 관련이 있다. 신성한 계시의 고봉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이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기능에서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— 요 1:14, 롬 8:3, 1:3-4, 골 3:4, 히 2:10, 계 21:10-11.

V.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주 예수님은 “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.”라고 기도하셨다.

- A.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단계(요 17:6-13)와, 거룩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됨으로 하나 되는 단계(14-21절)를 위하여 기도하신 후에, 주님은 믿는 이들의 하나가 삼일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하여 신성한 영광 안에 있는 것에 관련된 셋째 단계를 위하여 기도하셨다(22-24절).
- B.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영광이 아들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졌으므로, 진정한 하나는 신성한 영광 안에 있다 — 요 17:22.
 - 1. 영광은 아버지의 충만 안에서 아버지를 표현하도록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, 아버지의 생명과 신성한 본성이 있는 아들의 자격이다 — 요 17:1, 5, 22.
 - 2. 영광에는 네 방면, 곧 아들의 자격과 아버지의 생명과 아버지의 신성한 본성과 아버지의 충만 안에 있는 아버지의 표현이 있다. 이 네 가지는 우리가 아들 안에서 가지고 있고 아들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과 동일하다 — 엡 1:5, 4:18, 요일 5:12, 뵤후 1:4, 계 21:9-11.
- C. 하나 되는 것의 셋째 단계에서, 자신의 자아를 온전히 부인한 믿는 이들은 아버지의 영광을 그들이 온전히 하나 되는 요인으로 누려, 단체적이고도 건축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표현한다 — 요 17:22.
 - 1. 우리는 오직 하나 되는 것의 셋째 단계 안에서만 절대적으로 온전하게 되어 하나 안으로 들어가 주님을 나타내고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.
 - 2. 우리는 하나님의 나타남과 표현이 되는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과 심지어 하나님 자신을 가질 것이다 — 요 17:22.

VI.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에서 바울은 “하나님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. 아멘.”이라고 선포한다.

- A.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되고 있다.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들 안으로 일해 넣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— 엡 3:16, 고후 3:18.
- B.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에서 “하나님께 ... 영광이 ... 있으시기를 바랍니다.”라는 말씀은 성도들 안으로 일해 넣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것을 암시한다.
- C. 이 영광은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와서 우리 안으로 일해 넣어진 후에,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다.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다 — 엡 3:16-21.
- D. 이렇게 오고 감으로써 우주 가운데 첫 열매(약 1:18)인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앞장선다.

1.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 안으로 일해 넣어지고,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표현되신다 — 엡 1:22-23, 2:21-22, 3:16-17, 19하.
2.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있게 된다. 즉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다 — 엡 3:21.
3. 하나님은 교회 시대인 이 시대에서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왕국 시대인 오는 시대와 만대의 때 곧 영원 안에서도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— 마 6:13, 29, 롬 16:27, 계 5:13, 21:10-11.
4. 하나님께서 현시대부터 영원에까지 이르는 모든 시대들에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, 반드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— 엡 3:21.

VII. 새 예루살렘의 두드러진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, 곧 하나님의 표현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— 계 21:11, 23.

- A. 영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외양을 지니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분의 형상을 표현한다 — 계 21:10-11, 4:3.
- B. 새 예루살렘성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고 있다. 하나님의 영광은 성을 통하여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자신이다 — 계 21:11상.
 1. 하나님의 영광은 새 예루살렘의 내용이다. 왜냐하면 그 성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전히 가득 채워졌기 때문이다. 이것은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담고 그분을 표현하는 그릇임을 가리킨다.
 2. 하나님의 영광은 사실상 하나님 그분 자신께서 나타나시는 것이다. 따라서 거룩한 성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안에서 나타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.
- C. 하나님의 영광, 곧 표현되신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밝게 하시며 벽옥 성벽을 통해 빛나신다 — 계 21:23, 18상.
 1. 새 예루살렘의 빛은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다 — 계 21:11하.
 2. 하나님의 영광은 등이신 어린양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의 성벽을 통하여 빛난다 — 계 21:23, 18상.
- D.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이시며, 따라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그분을 새 예루살렘으로 취하고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— 계 21:22, 롬 15:5-7.
 1.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것이다 — 계 3:12, 21:11.
 2. 오직 우리가 새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은 우주 안에서 참되게 영광스럽게 되신다 — 롬 16:27, 고전 10:31.
- E. 새 예루살렘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할 것이다 — 엡 1:12.
 1. 영원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은 하나님으로 온전히 적셔져서 하나님을 표현할 것이다 — 히 2:10.
 2.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스럽게 된 아들들을 통하여 표현되실 것이고, 이렇게 표현되신 하나님이 곧 영광이시다 — 계 21:7.
 3.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천사들과 긍정적인 것들이 표현되신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.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된 아들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할 것이다 — 엡 1:12.